

연구노트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 선 주 | 본원 연구위원

18대 총선 여성후보자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태도와 개선방안

김 원 홍 | 본원 연구위원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김 혜 영 | 본원 가족연구실장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신 선 미 | 본원 연구위원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조 선 주 본원 연구위원

국가재정법 제정에 의해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으로써 실제 중앙부처는 2009년부터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인식 및 공감대가 국민 및 공무원들에게 크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준비가 부족한 경우 자칫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준비가 필요하다.

그 동안 성인지 예산 제도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본 연구는 개념의 정의부터 국내 재정운용시스템에 부합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까지 연구의 포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연차별 사업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센터’를 중심으로 한 ‘총괄기획팀’과 연구전문기관, 학회 등이 참여하는 ‘단위 연구사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은 그 1차년도로서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방법의 개발, 성인지 예산서 및 예산지침(안) 개발, 성인지적 중기재정운용체계의 마련, 외국의 성인지 예산 분석 사례 연구 등에 주력하였다. 2차년도인 2008년³⁹⁾ 올해 연구의 중점방향은 성인지 예산서(안)의 부처별·정책별 시범 적용, 성인지 예산의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 마련, 성인지 예산의 심층 분석,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등이다. 3차년도인 2009년에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개발, 성인지 예산정보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의 가이드라인(로직) 개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분석훈련체계 구축, “성인지 예산” 가이드북 및 홍보책자 개발 및 발간 등을 중점 연구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년 단위 연구사업의 관리 및 지원, 단위 연구사업의 내용 총괄 분석, 국제회의 개최, 해외 현지조사 기획 및 추진, 성인지 예산 제도화포럼 운영(GB포럼), Gender Budget Net(<http://gb.kwdire.kr>) 운영 등의 총괄기획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39) 2008년 2차년도 사업인 성인지예산 제도와 연구 00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김영옥 센터장을 필두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학회,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서강대산학협력단, 경북대 산학협력단, 한국민우회 등의 연구진과 기획재정부, 여성부 공무원 및 이외 기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협력·참여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시행과 관련,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등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추진체계와 실행전략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정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정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및 준비상태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의 추동력을 갖게 해주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시행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구축은 성인지 예산 분석 업무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적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연구에서는 실제 2007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인지 예산 분석모형, 도입전략 등이 실제 적용가능한지의 여부가 성공적인 제도 도입의 관건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실행대안으로 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전략은 다음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첫째,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제출 프로세스에 따른 행정부의 역할을 정의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기구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성인지 예산 추진기구(성인지 예산 T/F)의 구성과 역할, 기획재정부와 여성부 및 여타부처와의 관계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여성부, 기획재정부의 위치와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셋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상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위치와 역할, 성인지 예산관련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체와 역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예산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의 구현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제출에 따른 국회의 역할,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의 역할을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행전략 측면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추진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Bottom-up 방식의 전략을 택하든 Top-down 방식의 전략을 택하든 단계적 접근의 구체적 추진방식이 검토될 때,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대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기관의 현황 파악을 토대로 구체적인 업무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성인지 예

산제도의 의제형성자이면서 강력한 후원자라고 볼 수 있는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도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환경에 적합성이 높은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원내외 전폭적인 관심을 받으며, 우리 재정환경에 맞는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과 추진체계, 실행전략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를 통해 2010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성 인지 예산제도를 안착시키고, 나아가 국가재정운용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18대 총선 여성후보자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태도와 개선방안

김원홍 본원 연구위원

2008년 4월 9일은 제18대 총선 일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으로 총 41명이 당선되어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13.0%(39명)에 비하여 0.7%(2명)이 증가되었다. 이번 제18대 총선의 지역구 여성후보는 전체 1,113명의 후보 중 132명(11.9%)이며, 당선자는 14명(5.7%)이다. 여성 당선율은 10.6%(132명의 후보 중 14명 당선)로 남성 당선율 23.5%(981명의 후보 중 132명 당선)에 비하여 12.9%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지난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245개의 선거구 중에서 지역구 여성 후보를 46명(44.6%)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여성후보는 없었다. 다음으로 많은 여성 지역구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평화통일 가정당으로 37명의 많은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이번 총선에서 신생한 정당인데다가 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남성의원을 포함한 단 한 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한편 국회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245개의 지역구에서 15명(7.6%)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4명이 당선되었으며, 제 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8명(7.3%)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0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진보신당에서 9명, 친박연대에서 2명, 자유선진당에서 2명, 직능연합당에서 1명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원의 진출은 한 번도 없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총 14명의 여성 당선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민주당의 조배숙 의원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의 지역구가 모두 서울 경기 수도권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이다. 둘째, 17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입하여 여성과 사회적 소수를 위해 정치적 대변자로서 평등정치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던 여성의원 17명이 출마했지만 한나라당의 나경원(서울 중구),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읍), 박영선(서울 구로 읍), 전여옥(서울 영등포), 진수희(서울 성동 갑)의원, 총 5명(15%)만 당선되었다. 셋째, 18대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 교체율이 사상 최고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7대 여성의원 중 재출마한 여성후보는 8명이었고(민주당 4명<한명숙, 김희

선, 이미경, 조배숙), 한나라당 4명(박근혜, 전재희, 이혜훈, 김희정), 이중 5명(이미경, 조배숙, 박근혜, 전재희, 이혜훈)이 당선되어 재선율이 62.5%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여 승리하기 위하여는 후보들의 자금, 조직, 이미지가 중요성이 언급되어 왔다.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경우 상당수가 당대변인과 유명세로 매스컴에 주목을 받았던 스타급 여성의원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견지하여 본 연구진은 2008년도 과제로 18대 총선 여성후보자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 및 일반정치에 있어서 이미지 정치 및 미디어 선거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제18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보도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여성후보, 일반 유권자, 미디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반응과 투표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선거보도의 영향과 선거제도 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① 여성후보의 선거운동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② 제18대 총선과 여성의 참여현황, ③ 미디어 매체별 총선 남녀후보 보도량, 보도내용 및 보도태도 분석, ④ 미디어의 총선보도에 대한 유권자와 여성후보자의 활용과 영향, ⑤ 미디어의 총선 여성후보 보도 분석의 함의와 개선방안이다. 미디어의 총선 여성후보 보도에 대한 내용을 위하여 10명의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2월27일~3월 26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18대 총선 출마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출마자)를 대상으로 2008년 3월 26일 후보등록일~4월 8일 선거운동 마감일(14일 간)까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 중앙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대 일간지와 지방은 권역별로 나뉘 충청은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전라는 광주일보, 전북일보, 경상은 매일신문, 부산일보, 제주는 제민일보, 강원은 강원일보를 모니터하였고, 방송은 중앙은 MBC, KBS, SBS 주요 3대 방송사, 지방은 지역민영방송사 9곳으로 부산은 KNN, 대구는 TBC, 광주는 KBC, 대전은 TJB, 울산은 UBC, 청주는 CJB, 전주는 JTV, 제주는 JIBS, 강원은 GTB을 모니터 하였다. 결과는 현재 분석중이다. 그리고, 일반유권자 대상 미디어 반응도 및 투표행태를 조사 분석중에 있는데,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중 만 19세이상의 18대 총선 투표자중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관심도, 미디어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및 인식, 선거보도가 여성후보 투표에 미친 영향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7월에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여성후보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후보들의 효과적인 미디어 선거 활용방안 제시하는데 있다. 과제담당자는 본원의 김원홍 연구위원, 이수연 연구위원과 고은경 위촉연구위원이다.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김혜영 본원 가족연구실장

최근 들어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아버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드라마나 소설 속에 등장한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슴에 담은 뿐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래서 엄격하고 과묵하나 가족부양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말없이 감내하는 크고 먼 산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거나 가정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정작 가족부양과 자녀양육의 책임은 방기한 채 가족 밖을 부유하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비되어 왔다. 물론 과거 수많은 아버지들은 이러한 양극단 어딘가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소 극적으로 표현된 이같은 아버지 상은 아버지들의 실제 삶이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단에 존재하는 과거 아버지들에 대한 이미지에는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요즈음 양육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은 급속한 가족의 구조변동과 더불어 아버지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 내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개인 차원의 노력인 동시에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가족생활 참여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듯, 전통적인 아버지는 가족의 주된 부양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요원칙과 규율의 엄격한 수호자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권위자로 이상화 되어왔다. 그러나 정작 산업화 이래 공사영역의 구분이 더욱 극명하게 가시화되면서 가족 내 아버지들의 역할은 축소되어 그 존재감마저 희박해진 반면, 가족의 생계벌이자로서의 도구적 기능은 크게 부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은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과 권위를 빠르게 해체시키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노동시장경쟁의 가속화와 함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예컨대 한 국사회의 경우, 대량실직사태를 초래한 IMF의 경제위기는 가족 내 성역할 변화를 가시화

하는 주요 계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 이후 꾸준히 상승해온 주택구입비용과 자녀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 그리고 가구소비수준의 증가와 IMF 이후 더욱 심화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를 자극하는 주요한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취업필요성의 증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41.9%에서 2005년 50.1%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기혼여성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85년 40%에 불과하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5년에는 51.4%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더욱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이가 지속된다면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김혜영, 2007).

이같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는 무엇보다 이제까지 단순한 가계보조소득으로 인식해왔던 아내의 취업을 가구전체의 소득수준을 변화시키는 주부양자 지위로 부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성별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확연한 변화는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남성 가운데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66만 7천 명은 나이가 많아서 일할 능력이 없는 66만 7천명과 심신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취업준비중인 만 7천 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절반, 즉 백만 명 정도의 남성들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놓고 있는 ‘사실상 백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200만 명의 비취업 남성 가운데 6만 4천 명은 아내 대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이며, 이같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청, 2008).

여기에 더해 과도한 경쟁을 수용하며 일벌레로 살아온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다양한 삶의 욕구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가족생활보장은 남성의 권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는 어머니에 비해 현격히 낮지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바야흐로 아버지의 역할은 생계부양자, 엄격한 훈육자로부터 늘어나 대화파트너와 같은 정서적 역할과 돌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로 확대되는 동시에 아버지의 연령과 세대, 소득이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서구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아버지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가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부모기 전이과정의 어려움이나 만족감’, ‘누가 양육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와 같은 단순 차원을 넘어 남성들이 양육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경험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무엇인가로 전환되는

추세이다(Hood, 1993).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부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하고, 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특징의 주제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비록 최근 들어 배우자출산후가 및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발화되는 시점에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버지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거나 이들의 부성경험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적 논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사회에서 생계부양자,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 이외에 자녀양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남성의 부성경험과 이들의 가족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부모권 보장과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으로 현대가족에서는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성의 부성경험을 통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자신이 현재 수행하는 아버지 역할의 차이, 그리고 가족내적 욕구와 노동시장 내 요구사이에서의 갈등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양육지향적인 아버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부성경험(아버지 됨)을 통해, 본인이 내면화한 아버지의 역할과 사회적 기대, 그리고 현재 본인이 수행하는 아버지 역할 격차와 이로 인한 갈등양상을 분석하고, 남성들의 부성을 사회적 권리로 수용하고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이 경험해 온 원가족 관계와 현재 자신이 구성한 가족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규정하는 부성(아버지 됨)의 정의, 최초 부성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와 아버지 됨의 역할취득과정과 이를 방해하는 가족내·외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확대의 요구는 크지만, 정작 취업남성 역시 취업모와 유사하게 직장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경쟁적 요구로 인한 갈등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중적 역할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연구가 아버지의 역할,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양육참여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인성발달과 역할만족도에 집중되고 있어 거시적인 정책제언과는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신 선 미 | 본원 연구위원

대졸 청년층 취업난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나, 실은 1990년대 초 대학정원자율화 이후로 빠르게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문제로 등장할 소지를 축적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 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층 중 대졸자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그 비율이 2007년에는 85% 이상이다. 그러나 그만큼 대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대졸자의 직업기대와 직업세계 현실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청년층 취업난이 만성화된 상태이다. 특히, 여자 대졸자의 경우 취업 장벽이 더 높기 때문에 직업기대와 직업세계 현실 간의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전문대학생 1,236명, 4년제 대학생 81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6)』원자료, 『교육통계연보(2006)』, 『인적자본 기업패널(1차년도)』원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한편으로 여대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직업세계, 졸업 후 희망직업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다른 한편으로 대졸 청년층이 경험하는 직업세계 현실을 비교하였다.

본 원은 2008년에 동 연구의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제명은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에서 표본을 설계하여 전문대 학생 3,000명, 4년제 대학생 3,000명을 조사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 재학생의 직업기대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반면, 이 연구는 그와 함께 직업세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여 직업기대와 현실 간의 격차가 직업세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7년 파일럿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희망직업에 취업 시 기대하는 임금과 실제 청년층 취업자 임금과의 비교 결과

- 전문대 여학생의 81.2%, 4년제 대학 여학생의 70.0%는 각 수준의 일반적인 대졸자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기대한다.
- 전문대 여학생의 41.8%, 4년제 대학 여학생의 37.7%는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세분류)에 이미 취업해 있는 34세 이하 청년층 임금의 중앙값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희망한다.
- 여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다만, 그 정도의 임금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여학생이 과반수 이상이며,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다고 여기는 임금수준은 일반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

○ 희망직업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

- 여대생들은 학력(교육수준)이 기업의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간주하며, 채용 상의 여러 가지 차별 중에서도 학력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만, 정작 희망직업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교육수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전문대 여학생의 50.7%만이 희망직업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교육수준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고, 22.4%는 현실보다 높게, 26.8%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희망직업에 관한 정보 수집 경험이 많을수록 희망직업에서 요구되는 교육수준을 적절히 인식하고 있다.
- 4년제 대학 여학생은 74.0%가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4.7%는 현실보다 높게, 11.3%는 현실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 희망직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직장유형에 관한 인식

- 전문대 여학생의 39.8%, 4년제 대학 여학생의 65.4%는 희망직업의 일자리가 대기업(300인 이상)이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에 비해 29세 이하, 경력 3년 미만의 여성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다. 전문대 졸 여성 청년층 취업자의 72.2%, 4년제 대졸 여성 청년층 취업자의 54.4%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 졸 여성의 16.5%, 4년제 대졸 여성의 25.9%에 불과하다.

○ 희망직업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

- 희망직업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전문대 여학생의 82.4%, 4년제 대학 여학생의 91.7%가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21.7%)보다 낮은 직업을 희망직업으로 선택하였다. 즉, 실제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은 직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여학생들은 희망직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 희망직업에서 근무시간이 많거나 불규칙하다고 인식하는 여학생들 중에서, 전문대 여학생의 85.8%, 4년제 대학 여학생의 93.9%는 전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52시간)보다 짧은 직업을 희망직업으로 선택하였으면서도 해당 직업의 근무시간이 많거나 불규칙하다고 인식한다.

○ 채용 조건에 관한 인식

- 전문대 여학생은 기업체의 직원 채용에서 학력, 업무능력(직무역량),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여학생은 업무능력과 학력 이외에 출신학교와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업체는 업무능력과 학력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자격증과 출신학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다른 한편으로 기업체는 업무능력과 학력 이외에 전공, 경력, 인성/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비해, 여대생들은 후자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주요 선행연구

- 송창용 외(2007),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 석·박사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외(2006),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 석·박사 재학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한상근(2002), 재학생 희망 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김나라(2005),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 대학 재학생 희망 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